

2008년 11월 24일 월 말씀

부산 예술단들 열심히 잘 하십시오. 내가 제일 처음에 부산에 집회하러 갔었습니다. 집회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며 KBS홀 큰 곳을 빌려왔었는데 3명 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고 세 시간이 지나니까 두 명이 중간에 나가고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혼자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앞으로 교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부산이 커진 것입니다. 교회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10년 동안 외국 다니면서 50개국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왔기에 예술단들은 앞으로 외국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개국 나라에 갈 수 있고 나머지 20개 나라는 아직 개척중입니다. 몇 천 명씩 되는 나라도 있으니 이제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외국 회원들이 나에게 늘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뭇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갈 기회가 더 많을 것입니다.

40~50명 되는 교회는 한명씩만 데리고 와도 금방 100명이 됩니다. 작은 교회는 한 명씩만 데리고 와도 금방 배가 가 됩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은 큰 교회는 배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가 전도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 최고 약자인 것입니다.

전도할 때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은 소리를 활용하십시오. 거기에는 나도 글을 쓰고 회원들도 글을 쓰는데 너무 잘 써서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여기서도 책을 빌려주면 주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책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살 수 가없다며 잘 안줍니다.

2008년 11월 21일 금 말씀

현실주의자는 현실을 보고 이야기 합니다. 과거는 이야기를 해야 알지 이야기를 안 하면 모릅니다.

캠퍼스 희망이 있으니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15명 이면 금방 30명 40명 70명 될 것입니다. 금방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유럽 가서 전도하려고 볼 차고 돌아다녔습니다. 운동 끝나고 이야기하러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영국에서 축구하고 저녁에 우리 집에서 파티 있으니 오라고 30명이 약속했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준비한 음식 먹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사람 하나 세우면 대단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큼니다. 그 후 내가 나오고 나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3년 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갔다 온 후에 선교사들이 가서 자기네가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을 먹고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하면 살려고 목숨 걸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정신으로 악착같이 해야 합니다. 전도 몇 십 명, 몇 백 명 가지고 전도했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전에 나는 전도하러 가서 80명밖에 못하고 왔다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루에 80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 강연을 3시간을 해서 다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범을 보여서 세계 50개국까지 만들고 수 십 만 명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병을 고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의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믿는 사람은 자기 믿음에 의학도 가미시켜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의사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계속 기도해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전도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르는 것도 잘 길러야 합니다. 한 번 낳으면 얼굴이 기형이고 앓은뱅이라도 기어코 길러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길러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부모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잘 기르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길러야 합니다.